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병일*, 박희서**

The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Internet Expectation on Internet Addiction -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Raising Attitude -

Byeong-Il Jeong*, Hwie-Seo Park**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인터넷 기대, 부모양육태도, 인터넷 중독의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요인인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eywords :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인터넷 기대, 부모 양육태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ideas for policies and theories by analysing the control effectiveness of parents' raising attitude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Internet Expectation. For this, the questionnaire surveys composed of measures on adolescents' self-control, Internet Expectation, and parents' raising attitude, were carried out to 312 high school students in G

제1저자 : 정병일, 교신저자 : 박희서

투고일 : 2014. 1. 14 심사일 : 2014. 1. 27, 게재확정일: 2014. 2. 3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metropolitan city, and the relation of the variables were studied.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found out adolescents' self-control and Internet Expectation influenced the internet addiction. Expecially,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Internet Expectation of internet addiction was differed by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In this research, the ideas of polici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Internet Expectation, Parents' Raising Attitude

I. 서 론

인터넷은 이제 우리생활의 일부이며,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게임, 정보검색, 채팅 및 메신저 등의 편향된 사용을 하고 있다[22]. 청소년은 정보 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일상에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어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청소년은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그 부작용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20].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이 10.7(754천명)%로 유아동 7.3(157천명)%, 성인 6.0(1,292)%에 비해 청소년의 중독률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과몰입할 경우 사회성이 떨어져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개인심리적인 요인 즉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이용 경과에 대한 인터넷 기대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이 속한 일차집단인 가족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민주·자율적

인 양육태도와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차이가 있는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에는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한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21.0 과 AMOS21.0을 사용하였으며 변수의 측정도구 검증과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고,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23].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응성이 낮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기도 하지만 자기통제력이나 자기효능감, 강박적 성격 등이 중독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한다[25].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생활양식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19]. 또한 인터넷 중독은 병적인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금단현상, 내성, 현실생활의 어려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존성과 금단증상, 인터넷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학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인터넷 접속을 줄이려는 시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내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중독의 유형에 따라 사이버 섹스 중

독, 사이버 관계중독, 네트워크 강박증, 정보 과다사용, 컴퓨터 중독 등으로 분류하였고(29),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경매, 주식거래, 도박, 온라인게임, 사이버섹스 등과 같이 구분하였다(26). 또한 인터넷 중독은 중독대상에 따라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중독으로 보았다(24)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첫째, 인터넷 중독을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장애로 보는 시각이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과도한 각성 상태를 추구하는 장애로 보는 입장이다. 셋째, 채팅방을 엿보거나 성(sex)행위를 엿보는 등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관련된 중독행위를 관찰하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분출하는 인터넷 중독을 관음적 상태의 변형으로 보는 입장이다(13).

2.2.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2.2.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스스로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6). 자기통제력은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7). 자기통제력의 반대의 개념은 충동성이다. 충동성은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절장애 또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느낌을 겪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은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문제행동에 가담하게 되어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된다.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고,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는 부적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18). 이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성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4).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변인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집단이 인터넷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Heppner & Petersen (1982)의 문제해결 척도(PSI, Problem-Solving Inventory) 35문항 가운데 개인적인 통제력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2.2.2.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문제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터넷 기대, 즉 인터넷 이용 경과에 대한 기대감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4). 즉 인터넷 기대의 하위요인인 갈등 해소, 자신감 획득, 정보 획득, 인간관계 증진 등 갈등 해소가 인터넷 중독 변량의 33.4%를 설명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인터넷을 자신의 욕구충족이나 갈등해소로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욕구충족이나 갈등해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현실적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회피하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학업, 부모 또는 친구와의 갈등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감을 획득하려는 인터넷의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한 후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인터넷 기대를 말하며, 이시형 등(2000)이 제작하고 김효순(2009)이 사용한 인터넷 기대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인터넷 기대 지각 점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3.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요인으로 분류한 가설적 모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9). Schaefer의 부모 양육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하며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청소년은 활동적, 창의적, 사교적이며 타인과 적대감 없이 지낸다.

둘째, 애정적-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하는 부모 양육태도에 아동은 의존적이며, 사교성, 창의성이 떨어진다.

셋째, 자율적-적대적 태도는 방임형의 양육태도로 자녀를

예정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아동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복중적, 공격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넷째, 통제-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 체벌 또는 심리적 징벌을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아동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복중적, 반항적, 공격적이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Schaefer는 이중에서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들은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잘하며 사교적, 창의적이어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고 하였다[17]. 이처럼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은 아동의 성격형성, 행동, 정서와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춘기의 방황, 가족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며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진다[28].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환경적 조건으로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고[10][2],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자율적인태도와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김효순(2009)이 '수용-거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측정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자율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2.3. 인터넷 중독관련 선행연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집단은 가족응집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11],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충동성 및 대인관계의 성격적 요인 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사용수준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건전하고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수준이 낮다고 한다[21]. 즉, 인터넷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6].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12].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인터넷 중독 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1].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인터넷 중독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게임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나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에 있어 게임 애착,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게임 이용동기가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스트레스나 자기효능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불안감, 강박증, 학업 성취감 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7].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독립변수로서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인터넷 중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로는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를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가설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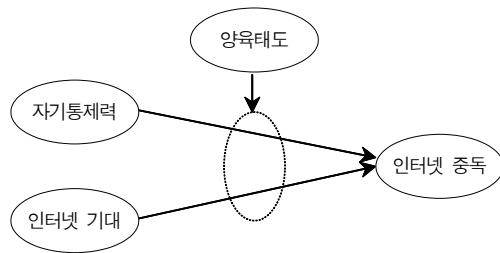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표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 (가설 1)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G광역시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가설의 모형 검증을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7일부터 11월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350부 중 338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26부를 제외한 312부(남:157, 여:155)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적재값을 나타냈다. KMO(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는 0.772이고 유의확률은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자기통제력, 인터넷 기대, 양육태도, 인터넷 중독 등 4개의 요인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요인들의 항목들이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4.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0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과 권위·통제)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2>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카이제곱 값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자율적일 때 185.090, 자유도(Df)는 104, X²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일 때는 카이제곱 값은 177.979, 자유도(Df)는 102, X²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주요 모델적합도 지수로 절대적합지수인 GFI는 양육태도가 민주·자율적일 때 0.903, 증분적합지수인 NFI, IFI, TLI,CFI와 RMR값은 1에 가깝고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05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일 때 GFI는 0.908, 증분적합지수인 NFI, IFI, TLI,CFI와 RMR값은 1에 가깝고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049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

CMIN/DF 값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자율적일 때

1.780으로 기준치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RMR, AGFI는 비록 부적합으로 나타났지만, GFI는 기준치에 부합한 수치이고, CFI값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0.922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일 때 CMIN/DF 값은 1.745로 기준치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RMR, AGFI는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GFI는 기준치에 부합한 수치이고, CFI값이 기준치는 0.927으로 나타났다.

비록 AGFI는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통제)에서 0.9이하로 나타났지만,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on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CFI 지표값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자율적일 때 0.922,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일 때 0.927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2. Fitness index of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x2(p)	df	GFI	RMSEA	RMR
적합 지수	양육태도 (민주·자율)	185.090 (.000)	104	.903	.050	.064
	양육태도 (권위·통제)	177.979 (.000)	102	.908	.049	.057
구분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NFI	IFI	CFI	AGFI	
적합 지수	양육태도 (민주·자율)	.842	.924	.922	.855	
	양육태도 (권위·통제)	.848	.929	.927	.859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독립변수, 즉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표3>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이(.172)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의미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터넷 기대(.195)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기대가 높다는 의미로 인터넷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가설검증결과
Table 3.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설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표준화				
자기통제력 ->인터넷 중독	.225	.172	.094	2.393	.017	채택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298	.195	.095	3.132	.002	채택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과 권위·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4>와 같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결과는 P=0.029로 나타났다. 이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4 조절효과검증결과
Table 4. Summary of Findings in control effects

Model	DF	CMIN	P	NFI	IFI	RFI	TLI
양육태도	2	7.111	.029	.006	.007	.004	.004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체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인 구조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는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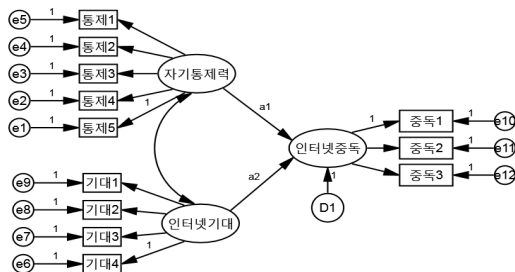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Fig. 2. Summary of Findings in Model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의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자기통제력(.340, .077)과 인터넷 기대(.067, .550)는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Table 5. The control effects of Parents' Raising Attitude

가설		자기통제력->인터넷 중독	인터넷 기대->인터넷 중독
양육태도	경로 계수	민주·자율	.340
		권위·통제	.077
	C.R	민주·자율	2.947
		권위·통제	.454
	p값	민주·자율	.003
		권위·통제	.650
차이여부		있음	있음

V.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민주·자율, 권위·통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민주·자율적일 때 조절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적일 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자율적일 때 자기통제력이 높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는 민주·자율적일 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적일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 기대를 낮추고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민주·자율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권위·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 기대를 낮추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자녀와의 관계가 잘 유지 된다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Gu, Eunjeong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 National of Education Univ. master's thesis.

[2] Kim, Kyungwoo (2009). "The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Influencing Factor and Coping Strategies for Juvenil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4, No. 9, pp. 157-165.

[3] Kim, Gyunghye (2012).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Mokp Univ. Ph.D. thesis.

[4] Kim, Seiyoon, Choi, Seoyun, Kim, Beomsoo (2007). "The Impact of Self-Consciousness, Stress, and Internet Use Control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ults",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47~67.

[5] Kim, Sookyoung (2010). "A study on the Juveniles' online game flow and addiction : in the focus on influence of self-control", Hanyang Univ. Ph.D. thesis.

[6] Kim, Hyunsook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Seoul Univ. Ph.D. thesis.

[7] Kim, Hyosoon (2009).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 Focused on the Control Effect of Ecological System Factor", Chosun Univ. Ph.D. thesis.

[8] Park, Hwieseo (2010). "The Factors affecting on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and how to deal with it:: Focusing on Ecosystem Theor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5, No. 8, pp. 193-200.

[9] Park, Heejin (2001). "Effects of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parents' negative rearing attitude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usan Univ. master's thesis.

[10] Ahn, Seok (2000). "A Study on the addictive usage of the internet", Yonsei Univ. master's thesis.

[11] Im, Jinsook (2005). "An education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based on analysis of adolescents' internet usage", Korea National of Education Univ. Ph.D. thesis.

[12] Lee, Gyewon (2001). "The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Ewha Womans Univ. Ph.D. thesis.

[13] Lee, Seonae (2001). "A Study on the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d the Related Elements", Social Welfare Development, 7(1) : 57~ 83.

[14] Lee, Soyoungh (2000). "Impulsiv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s”, Korea Univ. master’s thesis.
- [15] Lee, Sihyong, et al (2000).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ternet Addiction,” Samsung Life Public Mental Health Research Foundation.
- [16] Lee, Jinsung (2009).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High School Students : Focused on Internet Use Motivation”, Hanyang Univ. master’s thesis.
- [17] Chung, Eungyoung (2008). “A Study on the Adolescent’ Internet Addicatio by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 mainly Based on their self-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nyang Univ. master’s thesis.
- [18] Cho, Haeyon (2001). “A Study on the Juvenile Internet Game Addiction and Personality Traits”, Hanyang Univ. master’s thesis.
- [19] Choi, Minjeong (2000).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ensation Seeking of Internet Addictive Users”, Chung-Ang Univ. master’s thesis.
- [20] Choi, Hyejin (2010). “The Impact Parenting, Self-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on Internet Addiction”, Sangmyung Univ. master’s thesis.
- [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9). “2008 Internet Addiction Survey”,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 [2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2012 Internet Addiction Surve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2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ion”.
- [24]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00). “PC addiction of youth”, Reports youth counseling issues.
- [25] Hwang, Sujung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social adjustment ability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Keimyung Univ. master’s thesis.
- [26] Davis, R. A.(2001a).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pp.187-195.
- [27] Logue, A. W.(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28] Young, k. s.(1998). “What is internet addiction?” <http://netaddiction.com>.
- [29] Young, K. S(2000). “Internet addiction”, House of Sharing.

저 자 소 개



정 병 일

2011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12년 2월 ~ 현재 :

통합심리상담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가족복지, 노인복지,

상담심리, 사회복지실천

Email : oh2ne@daum.net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마케팅,

정책학

Email : hspark@chosun.ac.kr